"한 알에 1천원"…딸기 지난해 대비 '47%' 급등

기온 하강 등 초기 생육부진…출하량 감소 등 영향

한 상자 '4만원' …"12월은 전년比 1% 증가할 듯"

"딸기 한 알에 1천원인 셈이네…비싸도 너무 비싸네"

광주 시민 박모(38)씨는 "새빨간 딸기가 먹고 싶다"는 임신한 아내의 지나는 듯한 한마디에 곧장 만 원짜리 몇장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총총걸음으로 동네 마트를 찾았다.

때마침 이제 갓 나온 딸기가 고운 자태를 뽐내며 과일 진열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리저리 모양과 빛깔을 비교하며, 박씨는 먹음직한 딸기 2㎏ 한 상자를 들어 올렸다 이내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른 과일을 둘러볼 수밖에 없었다.

'한 상자에 4만원', 가격이 너무 비쌌던 것이다.

이 장면을 바라본 과일 상점 주인은 "딸기가 금(金)값이죠?"라는 말로 머쓱한 손님의 마음을 달랬다. 그러고는 2㎏ 한 상자를 13~14알씩 소분해 1만3천원을 받고 판매하는 딸기를 사 가라고 추천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좋은 제철 과일을 싼값에 도매시장에서 가져오는 게 경쟁력인 과일 상점 주인에게도 금값 딸기는 '그림의 떡'과 같다. 매일 새벽 도매시장을 찾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딸기 가격에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상점 주인은 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의 11월 딸기 가격 전망에 따르면 2㎏ 한 상자 딸기 도매가격은 전년(2만9천900원)보다 높은 3만9천~4만4천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최고 47%가량 가격이 오른 셈이다.

딸기가 갓 출하된 이달 초에는 딸기 상품 한 상자가 평균 6만7천여원에 팔리기도 했다.

출하량이 감소하는 데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전반적인 과일 과격 상승이 급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11월 딸기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지역은 정식(모종을 밭에 옮겨심기) 면적이 감소했고, 영남과 충남지역에서는 여름철 고온으로 '화아분화(꽃눈을 만드는 작업)'가 원활하지 않았다.

8월 말~9월 잦은 강우로 정식이 지연되거나 재정식한 농가가 많아, 출하면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10월 기온 하강으로 초기 생육이 다소 지연돼 11월 초 딸기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월 출하면적은 신규농업인 재배 증가와 11월 지연된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결국 값싸고 맛난 딸기를 맛보고 싶은 소비자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딸기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연합뉴스

전남테크노파크, 광주·전북 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성과보고회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전남테크노파크가 광주·전북 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공동 주관하는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과보고회는 호남권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졸업)자들 간의 정보교류와 2018년 성과 공유를 통해 성공적인 1인 창조기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졸업)기업 및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유관기관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진형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리더십 특강을 시작으로 우수기업 13개사와 우수 운영인력 1명에 대한 표창, 1인 창조기업 성공 우수사례발표, 소통간담회 등으로 진행 됐다.

전남테크노파크 1인 창조기업에 입주해 보육지원 받고 있는 (주)수엔지니어링, 진형준설이 지식서비스분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수상을 받았다.

(주)수엔지니어링은 신재생 에너지 지열 시스템 제조 및 설치 기업으로 2018년 3월 입주해 선택형사업 및 마케팅 지원사업, 전문가자문등을 수행해 신기술 및 제품을 개발 완료해 사업화를 진행중 이고, 진형준설은 연안 및 내륙지역의 준설에 특화된 결합식 바지선 제조 전문기업으로 6월 입주해 선택형사업 및 중점자율프로그램, 전문가자문등을 수행해 준설 공법 개발을 완료해 사업화 진행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은 "전남테크노파크 1인창조기업 (주)수엔지니어링과 진형준설의 표창 수상을 축하드린다"며 "전남의 1인 창조기업이 BI→POST-BI→예비스타기업으로 이어지는 지역기업 육성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은 KJ카드, 추운 겨울 '따뜻한 동행' 실시

기프트카드 100만원 등 경품·무이자 할부 혜택 제공

광주은행은 광주은행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019년 1월 6일까지 연말 이벤트 '따뜻한 동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따뜻한 동행'은 △경품 이벤트 △기부 이벤트 △CGV 연계 이벤트 △해외직구 이벤트 △무이자 할부 혜택 총 5가지 이벤트로 진행된다.

△경품 이벤트 기간 내 홈페이지,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고, 개인신용카드(체크포함)로 합산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대상 1명에게는 기프트카드 100만원권, 금상 2명에게는 기프트카드 50만원권, 은상 20명에게는 롯데마트 모바일 5만원 상품권, 동상 200명에게는 GS편의점 모바일 1만원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기부 이벤트 본 이벤트에 응모해주신 고객님이 2만명 이상일 때 쌀 600㎏, 1만명 이상일 때 쌀 400㎏, 1만명 미만일 때 쌀 200㎏를 불우시설에 기부한다.

△CGV 연계 이벤트 기간 내 이벤트를 응모하고 전국 CGV(온라인예매 포함)에서 개인신용카드(체크포함)로 건당 2만원 이상 이용 시 1만원권 모바일쿠폰을 제공한다.

캐시백 혜택은 1st카드, 1st플래티늄카드, 1st플래티늄플러스 카드 등에서 제공중인 영화관 캐시백/적립 서비스와 중복해 제공된다.

△무이자 할부 혜택 백화점, 대형마트, 중소마트, 온라인 쇼핑몰, 가전, 가구, 여행, 병원, 학원, 자동차정비, 자동차보험, 면세점, 미용 업종에서 올해 말까지 최대 5개월 전액 무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광주은행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전, 미래형 마이크로그리드 개발 착수

국내 최초 메가와트 규모 에너지자립형 구성 계획

한국전력(KEPCO)은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를 미래형으로 개선하는 'KEPCO 오픈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오픈 마이크로그리드는 기존 마이크로그리드에 에너지 솔루션과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에너지 커뮤니티'다.

기존 마이크로그리드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위주로 구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다소 어렵다.

그러나 오픈 마이크로그리드는 연료전지를 발전원으로 추가해 신재생에너지만으로도 에너지자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물을 전기분해해 만든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메탄을 생산하는 P2G(Power to Gas) 기술을 활용,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소로 전환해 저장하고 필요할 때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다시 바꿀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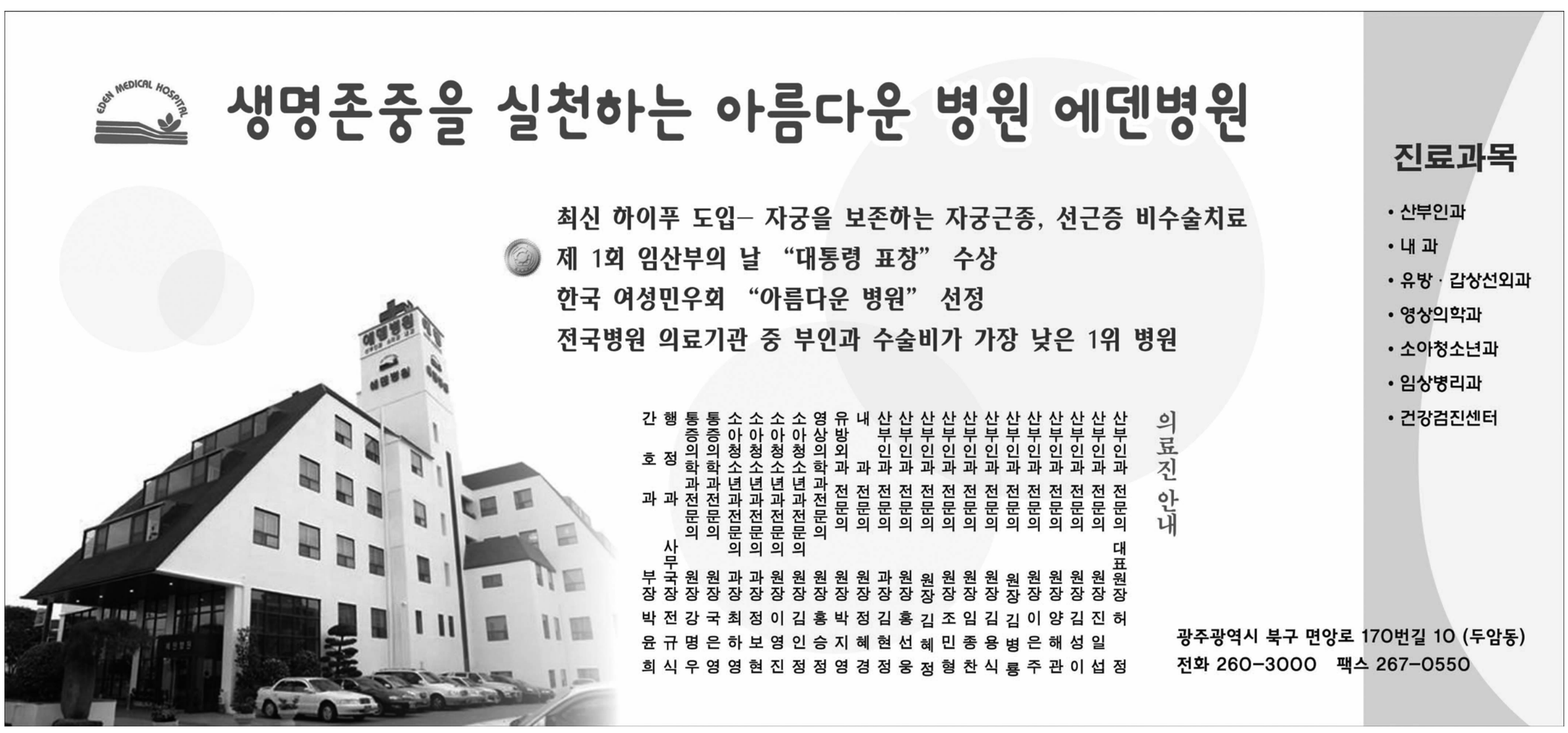
기존 마이크로그리드보다 에너지 자립율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한전은 프로젝트를 더 본격화해 국내 최초로 메가와트(MW) 규모의 에너지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할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jin2001@

"문자사과로 마음을 전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는 '제8회 거창사과데이'를 맞아 오는 22일까지 문자 사과를 한 개당 3천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로또 〈833회〉

추첨일 : 2018년 11월 17일

번호	12, 18, 30, 39, 41, 42 + 19
등위	금 액
1등	2,356,317,282원
2등	59,278,423원
3등	1,615,299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